

전남도, 내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5개 사업 선정



전라남도는 문화재청 주관 '2021년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에 도내 4개 시·군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3억 4천 4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사진은 구례 운조루 문화리뷰 프로젝트(사당채). /전남도 제공

증가·전통문화 보존 및 일반인 지속적인 관심 유도

전라남도는 문화재청 주관 '2021년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에 도내 4개 시·군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3억 4천 4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고택·종갓집의 문화를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종가문화를 비롯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일반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첫 시작된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내년 지원대상으로 전국 12개 시·도에서 총 40개 사업(국비 25억원)을 선정했으며, 이중 전라남도는 5개

사업이 선정돼 지역 증가문화 발전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추진될 사업 프로그램은 ▲나주 남파고택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가 역사문화 배우기' ▲구례 운조루의 '운조루 문화리뷰 프로젝트' ▲강진 영랑생가의 '더샵 252 영랑생가' ▲강진 정약용 유적을 활용한 '명발당 유배지에서 길을 찾다' ▲영암 죽정마을 옛담의 '영암 구림마을 종가여행' 등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추진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공모에도 이미 4개 프

로그램이 선정된 바 있으며, 국비 포함 총 사업비 3억 8천 600만원을 투입해 현재 나주, 구례, 보성, 영광에서 사업을 펴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규모가 확대돼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8억 6천 600만원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명섭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모는 전남 증가문화 자원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증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오 기자 jopark@



광주FC 응원 영상 공모 25일 홈페이지 영상 전광판 송출 18일까지 이메일 접수-10명 선정

프로축구 광주FC가 홈페이지에서 응원 영상 메시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광주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상주 상무를 상대로 치러지는 K리그1 2020 26라운드 홈패션전에서 응원 영상 메시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20시즌 홈패션전을 맞아 경기종료 후 전광판을 통해 팬들이 직접 보내오는 영상을 송출, 한 시간간 고생한 선수들을 격려하고 창단 첫 파이널A 진출이라는 쾌거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팬들의 부분적 입장(최대 25%)이 가능해진 만큼, 역사적인 홈패션전에서 팬들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으로 시즌을 함께 마무리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광주를 사랑하는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 이벤트는 선수단에 대한 응원 격려, 고마움의 내용이 담긴 영상(20초 기준)을 18일 밤 12시까지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사항은 구단 홈페이지(gwangjufc.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는 총 10명의 영상 주인공을 선정해 선수단 사인 유니폼(2명), 니트 머플러(3명), 옥스퍼드 블룩(5명) 등을 증정한다.

주장 여름은 "코로나19로 인해 팬들과 자주 만날 수 없어 아쉬웠는데, 역사적인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시즌 내내 열렬한 응원을 보내준 팬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해 전용 구장 첫 승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상주와의 홈패션전에서 팬들의 소중한 참여로 탄생한 창단 10주년 유니폼을 재착용해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오복 기자 boh@

광주시, AI 집적단지 착공식 대통령 참석 건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광주형 3대 뉴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착공식에 대통령 참석과 친환경 공기산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을 슬로건으로 17개 시·도지사와 노영민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수석,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및 흥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치권과 정부 주요

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과 안전의 휴먼뉴딜 등 광주형 3대 AI-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인공지능의 기본이자 핵심은 데이터임을 강조하며 AI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팅 시스템이 들어설 인공지능 집적단지 착공식에 대통령 이 시인들과 함께 해 주기를 건의했다.

앞으로 어떤 산업이나 기술도 인공지능과 결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이에 광주는 한국판 뉴딜 발표 전부터 미 실리 컨설팅과의 기술협력과 AI 인재교류를 위한

정부는 지역 균형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는 사례발표 및 토론을 통해 지역뉴딜 및 한국판 뉴딜의 성공의지를 다졌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광주형 3대 뉴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50만 시민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 뉴딜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에

MOU 체결, GIST의 AI대학원 설립,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 19 정국에도 AI 유망기업 38개사가 광주에 둠지를 트는 등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선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이밖에 그린뉴딜사업의 하나로 광주에 유치된 친환경 공기산업은 엄청난 시장수요를 가진 매우 유망한 미래 전략산업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줄 것도 건의했다.

/윤규진 기자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방역 관리에 들어갔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

동절기인 내년 2월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방역 관리에 들어갔다.

올해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돼 겨울철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년차 비발생을 달성하기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31개소)도 지정해 차량에 부착된 GPS를 통해 이동통제에 들어갔으며,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 134대를 총 동원해 철새도래지 및 주변도로와 인근농장 303개소를 매일 소독에 나선다. 도내 철새도래지 20곳에 대한 차단방역 홍보를 위한 일간판 25개와 현수막 61개, 발판소독조 41개 등도 설치했다. 특히 순천 순천만, 영암 영암호, 해남 금호호·고천암 등 주요 철새도래지

4곳에는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오리농장 주변으로 생석회 차단벨트를 조성하고, 가금류 출하 전 검사와 주 1회 도축장 검사도 강화했다. 육계와 육용오리 농가는 출하 후 14일간의 휴지 기간을 두며, 신규 오리 입식은 3단계의 입식 승인을 거친 후 입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국내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비발생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10월중 소·염소 72만두에 대해 백신 일제접종을 마칠 계획이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와 돼지 생분뇨의 타시도 반출입을 제한한다. /김정관 기자

개인회생, 파산, 면책 전문

신용불량을 정상으로 올려드립니다.

빚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희 박연희 법무사는 회생과 파산만 전문적으로 하고있으며 지금까지 총 3,000건 이상을 처리 했습니다. 믿고 맡기시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중앙로 114(상무랜드피아 312호)
T:010-3643-0590 사무실:062)383-5118
FAX:062)443-0102 E-mail:same2866@daum.net

법무사 박연희 사무소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국토의 실패자들

생각을 살립니다